[견종백과] 손

어이구 예뻐라x2

지금 모르시지만

저 무거울까 봐

살짝 들고 있었어요

[(매너 있시바)]

진짜예요

이게 시바야

[견종백과 / 시바이누편]

**시바이누의 인기?**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견종백과 이번 편은

[또리 / 시바이누 / 1세] 시바이누입니다

해외 인기 순위 랭킹을 보면

[(꾸준히 상위권인 시바)] 항상 시바이누가 들어갈 정도로

아시아의 대표 인기 견종으로 유명한 친구예요

**시바이누의 생김새?**

[시바이누의 생김새?] 시바이누는

45도로 살짝 앞으로 누운 귀

[(아이라이너 한 듯한 눈매)] 눈도 이렇게 예쁘게 검정색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꼬리는

진돗개들은 '장대 꼬리'라고 해서 삐죽하게 섰거나

'낚시 꼬리'라고 해서 꺾여있는 꼬리가 있는데

시바이누는 다 말려있어요

[(동그랗게 말려있는 꼬리)]

그래서 말려 있는데

꼬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요

엄청 예쁩니다

**시바이누의 색깔?**

[시바이누의 색깔?] 황구인데

주둥이에서부터 배를 타고 꼬리까지 흰색이에요

블랙탄 시바이누는 검정색, 흰색, 갈색이 섞여 있어요

이 두 가지 색이 대표적이고

하얀색 시바도 있는데 흔치는 않은 거 같아요

**시바이누의 특징?**

시바이누들이 밖에 나가면

약간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교육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가 시바.JPG) / 출처: 블로그 정통 시바견] 나가면 무조건 당기기만 하고 어디로 가려고만 한다고

이게 진돗개도 그렇고요

풍산개도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이게 학습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생존 지능이 높은 애여서

'내가 더 좋은 길을 알아'라는 태도예요

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수렵견이다 보니까

헌팅 드라이브가 조금 있어요

[(헌팅 드라이브 = 사냥 본능)] 그래서 새를 보면 좀 집중한다든지

차 밑에 있거나 담 위에 있는 길고양이들

그 친구들한테 조금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산에 가잖아요

정말 생이별하고 싶지 않으시면

줄 웬만하면 풀지 않으셔야 할 것이요

혹시나 고라니가 앞에서 탁 튕겨 나가면

진짜 끝까지 쫓아가는데

절대 안 와요x2

[시바이누의 실외 배변?] 혹시 보호자님 키우시면서 불편한 게 좀 있었나요?

**시바이누의 실외 배변?**

비 오거나 눈 많이 올 때

실외 배변하러 나가야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시바이누를 키우면

배변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눈 와도 실외 배변.JPG)]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파든 뭐든

[(비 와도 실외 배변.JPG)]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해요

진짜 깔끔해요

실내에서 안 싸니까

시바 키우는 집에서는 개 냄새가 안 나요

사실 실외 배변을 고집하는 개들이요

진짜 좋은 개들이거든요

가족들하고 먹고 자고

쉬는 곳에서 소변과 대변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이에요

멋진 고집이에요 이건 고치면 안 돼요

**시바이누의 활동량?**

[시바이누의 활동량?]

활동량 많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요

하루 종일 운동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더콜리나

말리노이즈들이나

리트리버들하고 다른 거는

그 활동량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인 탓을 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지 뭐

그래서 일반 사회인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반려할 수 있는 최상의 견종

[시바이누의 성격?] 예전에 시바이누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시바이누의 성격?**

그 세미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만지지 마 시바

진짜 제...

거짓말 아니에요

만지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래x2

지금 표정 봐봐요

미안

그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x2

별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치겠어 만지고 싶어서

엄살이 좀 심한가요?

아 시바 스크림

시바이누 시바 스크림 아주 유명하죠

엄살이 심한 행동인데요

그냥 어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살 대마왕 시바)]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짜 막 토도 하고 눈이 빨개지고 혀가 말리고

어떤 병원은 '시바 진료 중입니다'라고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수의사님이 때린 줄 오해하니까

주사도 안 놓고 이러고 있는데

**시바이누 키우는 난이도?**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5점 / 10점] 5 정도입니다

성격 여러 가지 면에서 2점

근데 털 빠짐 때문에 3점 추가됐어요

**시바이누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

[시바이누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고양이 파인데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그러면 시바이누 꽤 괜찮아요

[(고양이 같은 냥아지)] 고양이 같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고양이 키우시던 분이 강아지 키우려고 하면

패닉 오신대요

[(개인 시간이 익숙한 냥집사)] 야 나도 내 시간을 좀 갖자

이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시바이누는 치대는 것도 굉장히 적고

시바이누를 키우셨던 분이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게 되신다면

한동안 앓을 거예요 앓아

내가 개를 편하게 키웠었구나

그정도로 시바이누들이 얌전합니다

견종백과를 하면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었던 개가 있습니까?

**시바이누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

만지지 마 시바

[시바이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바이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만지지 마 시바